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모내기철 일손돕기 '구슬땀'

이원용 기자

승인 2026.05.28 17:04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가 여수시 소라면 소재 농가를 찾아 '2026농산어촌 행복충전활동'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지사장 김기진)는 28일,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시 소라면 소재의 농가를 찾아 '2026년 농산어촌 행복충전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영농기 인력난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순천광양여수지사 직원 3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지사 직원들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아침 일찍부터 농가를 찾아 이앙 작업의 핵심인 모판 나르기 작업을 전개하며 농촌의 시름을 덜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순천광양여수지사 김기진 지사장은 "이번 일손돕기가 일손 부족으로 고심하는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산어촌 행복충전활동'은 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브랜드로, 지역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대민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원용 기자 rain5504@daum.net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